

반백년의 역사를 지니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덕.신.농.장.

글·사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전남 영암에 있는 덕신농장(대표 양성현)은 한국 오리 산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덕신농장은 종오리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진출하며 오리업계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덕신농장이 오리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명성이 높았던 수많은 오리관련 기업과 부화장들이 사라졌지만 덕신농장은 50여년 가까이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양 대표의 한결같은 성실함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 대표의 두 아들들이 대를 잇기 위한 후계수

업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50년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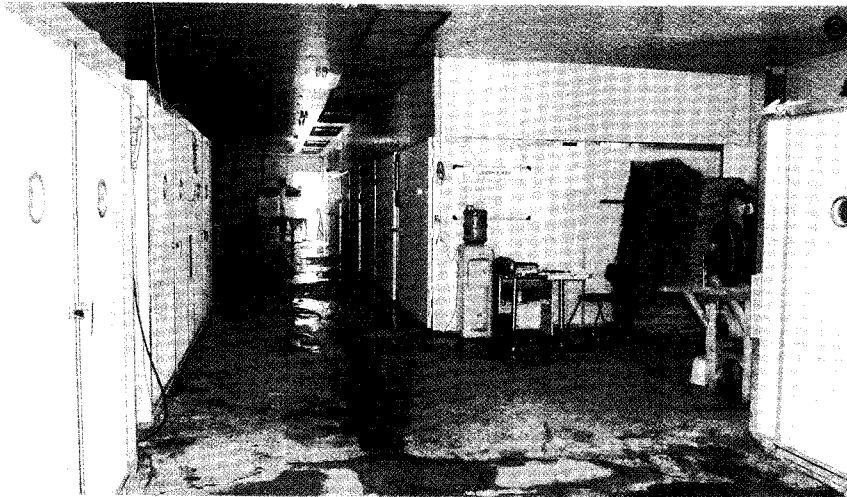
⊗반백년의 역사를 지닌 덕신농장

덕신농장 양성현 대표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무살 약관의 나이에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양 대표는 한때 국내 첫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오리부화장을 일궈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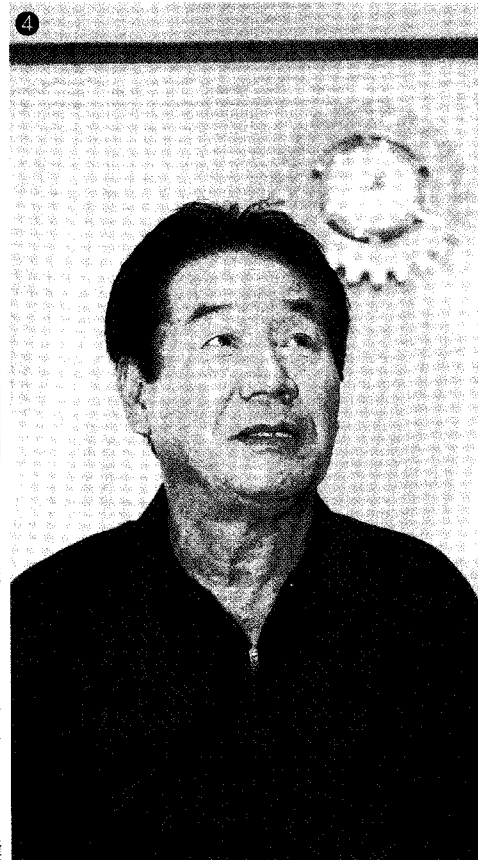
양 대표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오리는 먹기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으로만 이용하기 위해 키웠다. 때문에 소비도 한정적이었을 뿐만 아



2



3



4

1 종오리 축사 2 농장전경 3 부화장 내부모습 4 양성현 대표

나라 사육기반은 열악하고 사육기술도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양대표는 “소, 돼지, 닭 등 안키워본 가족이 없었지만 그래도 오리가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아 오리를 선택하게 된 게 벌써 48년째 오리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덕신농장을 둘러보면 농장의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964년도 덕신농장을 설립하면서 지은 축사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 농장입구에 있는 ‘덕신농장’이라고 적혀 있는 석판은 40여년을 한결 같이 농장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은 많은 농장들이 현대식 축사를 짓고 최신식 부화기를 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덕신농장의 시설들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덕신농장은 한때 국내 최고

의 종오리농장이었다.

이미 20여년전 7천~8천수의 사육규모를 갖췄으며 당시만 해도 이 정도 규모는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대규모 농장이었다. 하지만 양 대표는 이후에도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내실과 능력에 맞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HPAI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남 보성에 제 2농장을 설립하면서 2만수 규모로 늘린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을 유지하며 대를 잇는 농장

오리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명성이 높았던 수많은 오리관련 기업과 부화장들이 사라졌지만 덕신농장은 50여년 가까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그리고 양 대표의 두 아들이 대를 잇고 있어 앞으로의



⑤ 유통기공공장 덕신유통 ⑥ 제2직영점 내부모습 ⑦ 양성현 대표와 유통공부문을 맡고 있는 차남 흥주씨

50년이 기대되고 있다.

양성현 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농장일에서 손을 떼고 싶지만 후계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들의 만류로 지금도 농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다.

장남인 훈석씨가 오리유통과 프랜차이즈사업(덕신푸드)을 시작한 이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달라는 간곡한 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훈석씨는 대학시절부터 10년간 양 대표와 함께 농장일을 맡아 해왔으나 5년 전부터 오리유통업에 뛰어들었으며 '오리모리' 프랜차이즈사업에 진출했다. 장남인 훈석씨가 유통과 프랜차이즈사업을 맡고 있다면 차남인 흥주씨는 오리육 가공(덕신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또 보성의 제2농장은 매제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암농장까지 생산부문을 맡기고 장남은 유통, 차남은 제품 생산을 책임지게 할 계획이다.

양 대표는 “내 능력은 영암농장 하나만 운영하는 데도 벅찬데 다행히도 아들들이 대를 잇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믿고 맡기고 있다”며 “무리하게 투자해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능력에 맞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 대표는 아들들과 매제가 자리를 잡기 전까

지 영암농장을 책임지기로 하고 지금도 매일 아침 종오리 농장에 들어가 1천500~1천800개의 종란을 직접 수거하고 있다. 물론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10여 명이 있지만 농장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농장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 대표는 “매일 축사에 들어가 종란을 수거하다보면 종오리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 새로운 도전 가공·유통사업 그리고 청정오리요리전문점 '오리모리'

덕신유통은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지 7천143㎡에 연면적 1천492㎡의 규모의 HACCP 인증을 획득한 가공장으로 지난 2006년 설립했다. 덕신유통에서 생산하는 오리는 배의 주산지인 나주, 영암지역이 특성을 살려 '배숙성 오리'로 국내산 청정오리와 배를 이용한 숙성과정을 거쳐 오리 특유의 잡냄새를 없앤 특징이다.

영암오리요리전문점

오리모리

광주점 ☎513-9252

책임원장리 (주)덕신푸드(031)266-5295

P



●광주 제2직영점 외부전경 ●제2직영점 정원 ●제2직영점 내부모습 ●유통과 프랜차이즈사업을 맡고 있는 장남 훈석씨

특히 직접 생산한 오리를 이용해 가공, 유통, 판매까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서면서 덕신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덕신은 오리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타 업체의 시장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시장의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작한 것이 프랜차이즈사업인 청정오리요리전문 '오리모리'다.

2009년도 경기도 용인시에 개설한 '오리모리' 직영점은 소위 말하는 대박집이다. 예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훈석씨는 "5년 전 오리유통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판로의 필요성을 느껴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오리를 키우기만 하다가 처음 먹는장사를 시작한 이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훈석씨의 말이다.

용인 본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10여개의 가맹점이 생겼고 지난 8월에는 광주에 제 2직영점을 오픈했다.

훈석씨는 "전국에 10개의 직영점과 가맹점 100개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덕신농장은 은퇴 후 사회에 기부할 것

양 대표는 최근 그 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바로 대학생에게 매년 30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것.

양 대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아들들이 각자 맡은 부문이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 미련 없이 농장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공과 유통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일도 그만 두고 사회 봉사 활동과 장학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 대표는 "오리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봉사를 위한 투자는 후에 100배 혹은 1천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작은 소원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